광주FC '황금기' 이끈 이정효 감독, 동행 이어갈까

전북현대·울산HD 등 K리그1·일본 J리그 하마평
FIFA 징계·재정건전화 등 발목…"재계약에 총력"

프로축구 광주FC의 전성기를 이끈 이정효 감독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독 자리가 공석인 K리그1 구단은 물론 일본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축구계에 따르면 이정효 감독의 새로운 행선지로 전북현대·울산HDFC 등 K리그1 구단과 함께, 일본 J리그 클럽들이 거론된다. 광주FC 또한 이적설을 의식해 이 감독을 붙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광주는 지난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불거진 감독 거취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구단은 지난 4년간 이정효 감독이 보여준 압도적인 성과와 브랜드 가치를 인정한다. 시민구단의 재정적 한계 속에서도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철학이 구단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국내외 후원사 유치는 물론 지역 축구 생태계와 상생을 도모하겠다"면서 최고 예우와 시스템 혁신 약속했다.

이 감독은 2022년 광주의 사령탑을 맡아 K리그2에서 K리그1로 승격을 이끌었다.

이듬해에는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웠다. 리그 최하위급 예산을 가진 시민 구단임에도 K리그1 3위(16승 11무 11패 승점 59)를 달성했다. 이로써 구단 역대 최다승·승점·순위를 모두 경신했고, 구단 사상 첫 1부리그 전 구단 상대 승리를 따냈다. 이에 광주는 이 감독과의 계약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올해에는 창단 이후 처음 참가한 ACLE 무대에서는 역대 시·도민 구단 최초로 8강 진출의 새역사를 작성했다. 여기에 K리그1 3년 연속 잔류와 더불어 구단 사상 첫 코리아컵 결승 진출과 준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시민구단의 한계를 고려하면 믿기 힘든 성과다.

그러나 광주의 황금기를 만들어낸 이 감독과의 재계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는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신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고, 재정난으로 K리그 징계 위기에 놓여있다.

앞서 광주는 지난 9월 FIFA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향후 두 차례 등록기간 동안 신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2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현 에스테그랄)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를 송금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비록 두 번째 등록 금지 징계는 유예됐으나, 내년 상반기 정기 선수 등록 기간에는 신규 선수를 등록할 수 없다. 새 시즌 전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겨울 이적시장의 길이 막힌 것이다.

또 K리그 재정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해 제재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6월 광주에 1년간 선수 영입 금지와 3년간의 집행유예 처분을 통보했다. 광주가 2027년까지 완전자본잠식 해소와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징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순히 최고 대우 약속만으로는 이 감독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광주FC 관계자는 "이정효 감독의 그동안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구단의 황금기를 이끌어온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재계약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며 "대체자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구단은 지난 4년의 성과가 끊어지지 않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이정효 광주 FC 감독이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지난 10일 남악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전남도 체육진흥 유공자 시상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2025 도체육진흥 유공자 시상식'

"도민 모두 함께하는 체육 구현…내년 힘찬 비상"

전국체전 해단식 겸 행사…전남체육인 300명 참석
우슈 4연패 김민수·육상 3관왕 최지우 남·여 MVP

전남도체육회가 올해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내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1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남악 스카이웨딩컨벤션 4층 아노이홀에서 '2025 전남도 체육진흥 유공자 시상식'이 제106회 전국체전 해단식을 겸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도체육회 집행부 임원, 시·군체육회장, 회원종목단체장, 스포츠클럽 관계자, 생활체육지도자 등 전남체육인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감사패 전달·공로패 전달, 최우수 팀·선수 시상, 태극상·이사회상 등 제106회 전국체전 체육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전남도체육회장상 수여식으로 꾸려졌다.

감사패와 공로패는 전남도선수단에 많은 도움을 준 후원기관과 상위입상 종목·학교에 공로패가 전달됐다. 최우수팀에는 혼성국제470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1039점을 득점한 여수시청 요트팀이 직장팀 대표로, 역도에서 금·은·동메달을 각각 2개씩 획득한 완도고등학교가 학교팀 대표로 뽑혔다. 최우수선수에는 육상 3관왕(400m·1600mR·1600mR Mix)을 차지한 최지우(광양하이텍고 1년)와 우슈 남자일반부 산타 60㎏급에서 4연패를 달성한 김민수(전남도청)가 선정됐다.

도체육회장 표창은 도체육회 장문환, 이영현 이사 등 전남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체육인 9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부 행사는 2025년 전남체육 한 해를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손점식 사무처장의 2025년도 전남체육 성과 보고, 선수단기 반환, 유공자 시상, 인사말,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도지사 표창은 이순이 도체육회 이사, 정태민 도국학기공협회장 등 도 체육진흥에 이바지한 유공자 총 50명이, 도의장 표창은 서정복 도체육회 고문, 강강원 도체육회 부회장 등 15명이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체육은 하계유니버시아드·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선전하며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전지훈련·전국대회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남체육이 더욱 힘차게 비상하도록 우수선수 지원, 체육시설 확충, 유소년 선수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도체육회장은 "2026년 도체육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체육 전문성 강화와 생활체육 확대, 도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체육 구현을 통해 새로운 전남체육 역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시체육회,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체육 발전 이끈다

스포츠클럽 워크숍 '성료'…11개 클럽 사무국장 등 60명 참석

광주시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1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2025 광주시 스포츠클럽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지역 11개 지정스포츠클럽 사무국장, 직원, 지도자 등 60명이 참석해 클럽 간 화합을 다지고 내년도 스포츠클럽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감사패 수여와 분야별 토론, 소통·유대 강화를 위한 산행 등으로 진행했다.

광주 지정스포츠클럽은 올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대한체육회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2억 4000만원의 국비를 받아 운영했다.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들이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참가해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선순환 시스템에도 기여했다.

또 최근 열린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에서는 광주지역 스포츠클럽 역대 최다인 8개 클럽(7개 종목) 193명이 참가해 총 24개의 메달을 획득해 스포츠클럽의 가치를 알렸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클럽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선수육성을 함께 실현하며 광주체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스포츠클럽이 더욱 활성화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조화를 이룬 선순환 체제가 확립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

광주장애인체육회, 장애 아동 체육활동 활성화 나서

광주장애인체육회-굿네이버스 호남권역본부 협약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11일 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장애 아동 체육활동 활성화 캠페인 추진'을 위해 굿네이버스 호남권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김현성 사무처장 오아름 굿네이버스 호남권역본부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체육활동 및 스포츠 프로그램 연계·지원, 지역 내 아동·청소년(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행사 운영 협력,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 장학금 지원 및 물품 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협약간 굿네이버스 호남권역본부측은 장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운동화 120켤레를 기부하며 협약 체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다양한 기부채널 운영을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